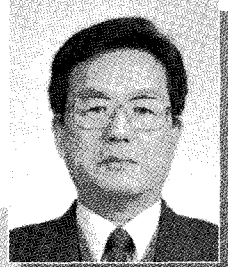


국가 가축방역정책 발전방향



김 봉 환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I. 머리말

국가 가축방역정책이란 가축전염병예방방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된 국가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업무를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목적인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 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명시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시대에 따라,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여건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나 우선 순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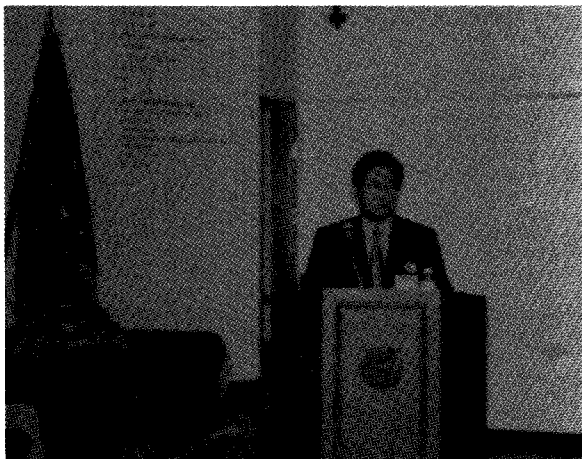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새 천년과 더불어 맞이한 21세기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용트림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개방과 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두보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WTO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시기에 우리는 뜻하지 않게 IMF의 구제금융에 의지하여 파산을 겨우 모면하는 치욕적인 사태를 당하여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큰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계는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봄에 구제역 발생이라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어 우리 축산업은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게 되었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종전과는 달리 위생적으로 안전한 고품질 일변도로 치달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 시대인 21세기에는 위생적으로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국제경쟁에서 밀려나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있다. 축산물의 생산지 곧 국적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국가의 위생상태가 문제시되는 세상이 되었다. 해서 축산물의 위생적 안전관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가축질병의 국가방역 및 예방과 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는 수의사이며 수의사에 의해서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이 도모됨으로서 축산업이 발전하고 공중보건이 향상되어야 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적 방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업무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임무를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방역관, 공수의 등)들이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되게 발전되어 왔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의업무의 영역과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II. 수의업무 영역과 역할

1. 동물질병의 예방, 치료 및 방제

수의사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무엇보다도 먼저 동물의 질병을 예방·치료·방제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즉 동물 방역업무의 성역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질병 중에는 전파범위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파하는 무서운 질병도 있어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질병의 방역 기능을 국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산하기구로 국제수역사무국(Office des Internationale Epizooties; OIE)이 1924년에 창설되어 국가간 수의정보교환과 국제규정제정, 중요질병별 전문위원회 활동 등으로 국제간의 동물방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동물질병을 전파속도 및 범위, 사회경제적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List A, B, C로 구분하여 140여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List A에 속하는 질병은 구제역, 수포성구내염, 돼지수포병, 우역, 가성우역, 우폐역, Lumpy skin disease, Rift valley fever, bluetongue, 양두, 아프리카마역, 돼지콜레라, 닭인플루엔자, 뉴켓슬병등 15종이며 이들 질병의 발생국가는 동물과 그 산물의 교역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OIE List A 질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List B 질병은 탄저, 우결핵, 부루셀라병, 광우병 등 90종으로 국가적으로 사회·경제적 및 공중보건상 여겨지는 전염병으로 국제교역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이다. 이러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정확히 진단하며 예방·치료하는 기능은 국가적으로 중요시되는 방역활동이다.

가축위생경제 (Animal Health Economics, OIE) 보고서에 의하면 가축 질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총 손실은 축산업 총 생산량의 20%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양축농가가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정책은 질병의 역학적 특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첫째, 국경방역정책(Quarantine, or Prevention)으로서 국가검역기능을 강화하여 해외악성전염병(Exotic Diseases)의 유입을 차단하거나 국경지대에 방역지대를 설정하여 동물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중요 질병에 대한 barrier vaccination으로 완충지대를 확보하여 월경하여 넘어오는 질병을 막는 정책을 들 수 있다. 구제역 등 OIE List A 질병이나 광우병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 질병의 발생국가로부터 동물과 그 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고 확인하는 등의 검역은 바로 이런 범주에 속하는 방역정책의 일환이다.

둘째, 살처분도태정책(Slaughter, or Test and Removal)으로 우결핵, 부루셀라병, 오제스키병, 추백리 등과 같이 검진하여 양성축을 도태함으로써 병의 확산을 막고 조기근절하고자 수행하는 정책이며,

셋째, 예방접종정책(Vaccination, or Control)으로

돼지콜레라, 뉴켓슬병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구제역의 경우 국경방역정책으로 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나 지난 3월 66년만에 구제역이 발생이 확인되어 강력한 살처분 정책과 ring vaccination 정책으로 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활동을 범국가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는 박멸을 목표로 의무적 vaccination policy로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stamping out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단계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돼지 오제스키병은 살처분정책과 예방접종정책을 병행하여 조기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경제적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국가방역과 국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중요 질병에 대한 예방·치료·방제는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2.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수단은 축산식품의 생산단계별 안전성 저해요인을 찾아 내어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12월에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축산물의 생산·처리·가공·운송·보관·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행정 및 위생관리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단계별 미생물오염 등 위해요인을 분석하여 차단해 나가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HACCP)가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가축의 생산·처리·가공·유통·소비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 원칙에 의한 철저한 실천만이 지상과제로 남게 되었다.

안전한 축산식품의 공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안전축산물 생산공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능의 강화이다. 이러한 기능은 국내생산이나 수입 축산물을 불문하고 내수용으로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하여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개정으로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으나 이 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우리나라 축산식품위생과 관련된 수의조직의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가축 질병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련 표준기관(Reference Laboratory)으로서 종래의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동물검역소를 통합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있으며, 시·도에는 가축위생시험소가 일선방역기관으로서 가축방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축산물 검사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는 물론 식중독을 일으키는 유해세균과 유해잔류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이므로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이다. 또한 축산물 검사를 통하여 가축의 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신속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에서는 축산물 위생검사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며, 가축질병과 축산물 검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수의사들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3. 동물약품 및 사료의 안전성 확보

동물 질병의 치료약이나 예방약 또는 성장촉진제 등의 성분 및 약효 등을 엄밀히 정하여 검정함으로써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잔류물질로 인한 공중보건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은 건전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에 필요 불가결한 국가적 책무이다. 아울러 안전성이 결여된 사료에 의한 가축의 건강장애도 크게 문제되므로 이의 안전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동물약품이나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취지대로 운용되어야 안전 축산물의 생산이 비로소 가능해짐으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동물의약품, 동물용의약부외품, 동물용의료기구, 동물위생용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과 동물의약품의 국가검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한 동물약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기능은 수의사의 중요한 활동영역이다.

4. 동물복지 구현

유럽연합(EU)에서는 가축도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에 가축의 사육·수송·판매·도축과정에서 위생과 복지를 우선하여 고려해야하는

복지관련 규정을 뉴 밀레니엄 시대에는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미국 등지에서도 동물복지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동물복지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학대받은 닭이 생산한 달걀은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바로 닭의 복지를 외면하고 생산한 농장의 달걀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5월 31일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으로 학대받지 않은 가축이 생산한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가축의 사육·수송·판매·도축과정에서 동물복지를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동물복지를 위한 정책의 실현은 전문 수의사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전문 영역의 하나이다.

III. 동물 방역·검역조직 현황

수의행정체제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1998년 8월 1일자로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업무만을 전담해온 동물검역소와 가축질병 진단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해온 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합하여 국가검사연구기관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탄생하였다. 중앙 동물방역과 검역조직은 이로서 통합 조정되는 획기적인 조직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지방 조직에서는 이런 변화가 없었다. 가축방역업무와 축산식품위생관리업무 등 수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조직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수의행정기관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에서는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축산물 위생정책 수립 및 수의약품·수의사 관련법률 운용 등의 업무를 14명의 직원(방역관)이 담당하고 있다.

2. 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업무와 관련된 명실상부한 중앙검사·검역 및 연구기관으로서 조직은 2부 14과 5지원 9출장소로 44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입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업무 및 가축·가금 질병에 관한 방역·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동물용 의약품 및 수의기구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시·도, 시·군 조직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련 정책의 집행계획 수립, 지시 및 시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제도에 의한 인·허가, 약사감시, 가축위생시험소 지도·감독, 농가 방역지도, 축산물 가공장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716명(수의직 198명, 축산직 5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질병 진단·예찰·방역, 축산물 검사, 도축·도계·원유검사 및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운반업·판매업 등 위생 감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특별시, 광역시(울산제외), 충남은 보건환경연구원, 여타도는 가축위생시험소(8개) 및 산하지소(2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총 723명으로 되어 있다. 이 조직의 설치근거는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법, 도 시험소는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IV. 동물 방역 · 검역환경 및 공중위생 여건의 변화

1. 동물 방역 및 검역환경의 변화

정책적으로 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었던 시대에는 수입국 및 품목의 선택이 가능하여 축산물의 검역측면에서도 관리가 용이하였으나, WTO 출범 이후 축산물의 수입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수입증가는 물론 수입선과 수입국이 확대되어 검역대상 질병 및 국가가 늘어나는 등 동물 방역 · 검역 환경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른 질병유입 위험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동물 검역건수를 살펴보면 '90년에 32천건 이었던 것이 '95년에는 43.8%가 증가한 46천건, '99년에는 137.5% 증가한 76천건이었으며, '98년 대비 52%가 증가하는 추세이었다. 수입선 다변화에 따라 검역 · 검사대상질병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여 '91년 13종에서 '99년 127종, 2000년도에는 무려 142종의 질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게끔 되었다. 이와 같이 업무량의 폭주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한 예가

구제역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역의 확대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악성 가축 질병의 발생이 문제되고 있다. 영국의 광우병, 대만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고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구제역 발생, 호주의 헨드라바이러스,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홍콩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네델란드, 스페인, 영국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 등 그 어느 때보다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이 많아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체제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OIE의 FMD 전문가는 우리 나라가 대만 중국 러시아 홍콩 태국 필리핀 등 구제역 발생국가로 포위되어 있는데도 이제야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구제역과 같은 악성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방역체제가 필요함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 들어 몇몇 나라에서 발생이 확인된 신종가축질병(Newly Emerging Animal Diseases)은 대부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 이므로 이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2. 공중위생 여건의 변화

식육 중의 병원미생물 및 유해물질 검출기법이 발달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았던 병원성 미생물

(Nipah virus 등), 유해미생물(O157:H7 등),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공중 위생상 심각한 위협요소로 새롭게 대두됨으로 말미암아 범세계적으로 소비자의 육류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 소시지의 리스테리아 오염사건, 호주산 쇠고기의 엔도설판 사건, 벨기에산 돈육의 다이옥신 오염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정비, 조직개편, 제도개선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통제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연구 등이 시급하다. 국민소득의 증대 및 안전 축산물에 대한 관심증가로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3. 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 일원화로 가축위생 업무영역 확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97.12.13)으로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98년 6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업무가 일원화되었다. 참고로 이관대상업종 및 업체수를 살펴보면 식육가공업(935개소), 유가공업(76), 알가공업(12), 축산물보관업(120), 축산물 운반업(599), 식육판매업(52,7670) 식육부산물 판매업(640) 등 7개업종 58,973개소가 이관되었으며 이관대상 품목은 102개 품목이나 된다. 이와같이 업무영역은 확대되었지만 이를 수행할 인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축산물 위생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입축산물 위생

관리 및 국내산 축산물 수거검사, 축산물가공장 위생감시, 보관·유통·판매단계의 위생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V. 현행조직의 문제점

1. 중앙수의행정조직

우리 나라의 가축방역, 동물·축산물 검역, 축산물 위생에 관련된 정책수립 및 관련법류의 운용과 동물약품에 관한 사항과 수의사의 지도 감독에 관한 제반 업무를 기획·운용하기 위하여 중앙수의행정조직으로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의 14명 직원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 외국의 중앙수의행정조직을 살펴보면 표 1에 있는 바와 같이 과단위가 아닌 최소한 국단위 이상의 행정조직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미주와 유럽 제국에서는 동물방역·검역, 식품검사(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처가 국민적 콘센서스를 얻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의 중요성에 비하면 국가차원의 대처가 미흡하며 미래지향적인 대책의 구현이나 예방적 차원의 수의업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건이 터져서 수습하는 차원의 수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원인이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관련정보의 분석 및 정책개발이나 수립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2. 국가 중앙 연구·검사 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농림부 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합하여 '98년 8월 1일자로 새로이 출범한 국가 중앙 검사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의 임무 및 기능은

1) 동물질병의 예찰, 진단 및 방역,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3) 수출입·국내 축산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검사, 4) 가축방역·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연구 및 보급, 5) 동물용 의약품 검정 및 수의기구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중앙 검사·검역 및 연구기관으로서 조직은 2부 14과 5지원 8출장소를 두고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국가검사·검역·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수의 행정을 직접 보조하고 집행할 수 있는 1차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농무성에 식품안전검사처(FSIS)와 동식물검역처(APHIS)가 있으며, 시험연구기관으로 국립수의연구소(NVSL)와 가축질병센터(NADC/ARS)에서 시험 연구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영국은 농수산식품성(MAFF)에 수의국(VS)과 동물방역검역국(AHW)이 있으며, 시험연구기관으로는 수의국 산하에 중앙수의연구소(VLA; Weybridge), 해외악성전염병을 연구기관으로 Pirbright 연구소가 있으며 지역 수의검사소(VIC)는 중앙수의연구소(VLA)로 통합되었다.

동물방역검역국에는 수출입검역, 질병방역,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농수산식품성(MAFF)에 식품·동식물검역차관보가 있어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 업무를 총괄하고 시험연구기관은 중앙수의원

(CNEVA)으로 통합되어 동물질병연구소, 동식물검역, 식품검사 및 동물약품검사 등과 지방의 위생시험소 등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 밖에 캐나다의 식품검사처(CFLA), 덴마크의 식품검사처(FIA)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가 검역·검사기구를 가축질병 방역·검역 및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업무를 기본으로 모든 식품 위생관리업무까지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여 나가는 추세이다.

구제역의 발생이라는 국가방역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국가 중앙 검사·시험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 조직을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정밀진단 및 발생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가축방역관의 발생현지 파견, 특수차폐실험실 운용 및 방역지도감독에 있어 한계점이 노출되었다. 국내 주요 전염병과 해외 악성전염병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전과 되기 때문에 강력한 방역정책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역전담 부서가 필요하나 현재는 기술개발 전담 부서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행하므로 강력한 국가방역구축이 지남하므로 악성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정밀진단 및 국가방역기술 개발을 위한 전담 부서와 전문인력의 부족을 보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금번 구제역 방역사업에 연구인력이 우선 투입되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할 국가과학 첨단 기술개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성전염병 방역기술이 축적되지 않은 방역활동으로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서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효과적

이고 신속한 방역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전국적 역학조사, 과학적인 모니터링체계 운영, 질병 특성에 따른 효율적 근절대책 및 정확한 진단, 예방기술을 운영할 방역전담 부서를 검역원에 신설하여 대비하여야 하며, 중앙시험연구기관과 지방시험소간 업무의 연계성 부족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지방수의조직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실행기관인 지방 수의 조직은 각 시·도 축산과 가축위생담당(계)과 축산물유통담당(계)과 각 시·군에서는 수의·유통담당이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명칭과 구성인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선 시·군에서 수의기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약 2-3명이며 경북도의 경우 수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군이 23개중 8곳으로 전문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축질병 진단·예찰·방역, 축산물 검사, 도축·도계·원유검사 및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운반업·판매업 등 위생감시·지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의 일원화로 업무량이 폭주하였으나 작은 정부의 슬로건에 밀려 오히려 인원이 감축되는 지자체도 있어 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축방역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시험연구기관과의 연계가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 효율적인 가축방역업무에 한계성이 이번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여실

히 들어난 바 있으며 이런 사실이 OIE 전문가에 의해 지적되기도 하였다.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술 지원 차원의 관계이므로 획일적인 국가방역의 구현을 위한 연계성 및 통제력이 미약하다. 구제역과 같은 고위험도 전염병은 국가주도의 강력한 방역체제구축이 필요하나 지방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여 구제역 긴급방역시 지역이기에 주의에 의한 민원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방역상 문제점이 노출되었다(표 2 참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방역·위생관련 긴급 사태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세계 여러 나라의 수의행정 및 시험·연구조직〉

국 별	중앙행정조직	시험·연구 조직	비 고
미 국	농무부(USDA) • 식품안전검사처 (FSIS) • 동식물검사처 (APHIS)	• 국립수의연구소(NVSL) • 국립동물질병센터 (NADC/ARS)	• 지역사무소 (5) • 지구사무소 (26)
영 국	농수산식품부 • 수의국	• 중앙수의연구원 (CVL) Weybridge, Pirbright	• 지역수의검사소 (3) • 지구사무소 (27)
프랑스	농수산식품부 (MAFF) • 식품·동식물검역차관보	• 국립수의식품연구원 (CNEVA)	• 지역위생시험소
캐나다	농수산식품부 (MAFF) • 식품검사청(CFA) 동물위생국, 식품검사국등 7부서	• 동물질병연구소등 6개 연구원	• 지역가축위생연구소, 식품위생연구소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MAFF) • 수의식품청	• 식품위생연구소등 5	• 지역위생시험소
호 주	1차산업에너지부 • 검역검사청 (AQIS)	• 가축위생연구소등 2	
아르헨티나	경제부 식품차관보 • 국립가축위생청 (SENASA)	• 중앙위생연구소 (SENASA부설)	
일 본	농림수산성 • 축산국 가축위생과 • 동물약품검사소	• 가축위생시험장 • 동물검역소	• 현 가축위생시험소 • 동물검역소 지소
한 국	농림부 • 축산국 가축위생과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검역원 지소

〈표 2 구제역 방역조치에 따른 문제점〉

조치내용	문제점	주체	개선필요	비 고
살처분	주민을 의식하여 소극적 대응	시·군	전문인력등 전문성 보강	
이동제한	통제 미흡(제한지역 광범위)	시도, 시군	통제강화(제도보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구축
가축관리 및 예방접종	농가협조 부족(미해의식)	시도, 시군	전문인력보강및 제도보완	
도축장, 가공장지정	처리능력 부족및 남비현상	시·도	사전대비	
혈청검사	전문인력부족	시험소, 검역원	전문인력 보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관계	지방정부의 소극적 조치	정부	지도·감독체계구축 및 제재방안 강구	

대한수의

VI. 수의정책의 발전방향

1. 가축방역정책

최근 국내 가축질병의 발생동향을 살펴보면 가축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의 결핵병과 부루셀라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돼지의 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 설사병, 돼지호흡기복합증후군(PRDC) 등의 발생이 양돈생산성을 압박하고 있는가 하면 닭의 뉴캐슬병, 가금티프스, 추백리 등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으니 주요 가축가금 질병의 방역정책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제역이 유입되어 축산업의 존립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질병에 의한 생산자의 피해는 경제적 손실이라는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육류의 유해미생물 또는 유해물질에 의한 보건상 위해가 심각하게 대

두되며 산업전반적으로는 국제교역 제한 및 소비격감 등의 영향으로 기반이 흔들리는 경 우를 체감하고 있다.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은 축산업과 연관산업의 존폐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질병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방역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차단하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우결핵, 부루셀라병,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뉴캐슬병, 추백리, 광견병 등의 질병에 대한 국가방역을 지난 수십년간 연례행사로 추진하여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질병의 방역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질병의 발생이 연례행사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오히려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방역정책과 방역체계로는 이병을 방제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에 돼지콜레라의 근절을 위한 범국민 적인 방역활동의 결과 백신접종율이 95%이상 유지되며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발생도 보고 되지 않은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돼지콜레라 근절의 필요성에 대한 전 양돈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의지가 이루어낸 당연한 결과 라고 할 수 있다. 대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생산자와 국가에 미친 손실을 실감하고 만약 의 사태에 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 3 월에 당한 구제역사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를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축방역정책 의 발전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제역, 돼지

콜레라, 뉴캐슬병 등 OIE List A 질병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근절하여야할 질병이며 정책과 제라고 할 수 있다. 소결핵, 부루셀라병, 추백리, 가금티프스, 오제스키병, 광견병 등의 근절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하며 방역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축산물위생검사와 가축방역 연계 추진으로 도축장검사 결과가 농장에 feed back 되어 위생개선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확대하여 민간자율방역의 여건을 조성해주어야하며 수의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져 국가방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산학협동으로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컨설팅제도 등이 확립되어 질병방역을 위한 생산자 및 단체, 관련기관, 수의방역기관 등의 상호협조가 이루어져 중요 가축질병의 국가방역이 최우선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축전염병 및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검역 검사기준 및 제도가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하며,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위험평가분석(Risk Analysis)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수출입 검역제한 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역인력의 전문화 및 선진 검역체제구축을 위한 부단한 연구와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며, 검역정보의 전산체제를 확충함으로써 고위험

도 검역물 중점관리 및 recall system을 엄중히 시행할 수 있는 유통정보 확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가축의 사양단계에서 부터 최종 소비단계인 식탁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보편화하였다.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개방 및 WTO/SPS(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 협정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축산물에 대한 동등한 위생 기준적용 및 검사강화가 시급하다. 국내산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품질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수출은 고사하고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어 있다.

가축의 사육단계부터 도축(집유), 가공 수송 보관 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위해요소분석 및 중점관리방안(HACCP제도)가 초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한다. 사양단계의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료 위생관리 대책의 마련 및 추진, 수의사의 진료 기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도축시설의 거점화 및 현대화로 새로운 도축질서 및 문화 창조, 축산물위생검사 인력·장비 확충 및 검사 기술을 확립하여 축산물위생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3. 수의관련제도개선

종축에 의한 질병의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 및 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종계장 인증요령을 개정 보완하여 검사대상질병의 종류, 인증검사기간, 인증조건 등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여야하며 종축(종계·란)의 생산농장 표시 의무화와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실익이 있게끔 되어야하며 종축업 및 부화업에 대한 등록관리철저로 차별화육성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질병 모니터링을 제도화하여 발생농장추적방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의진료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제고로 수의술에 대한 축산인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하며 공수의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기능을 강화 발전시켜 자율방역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요령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수의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VII. 맺는 말

국가 가축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수의행정 및 시험연구조직의 특성은 신속한 질병신고체제의 구축, 신속정확한 질병진단 및 유해원인구명, 이에 따른 신속과감한 방역조치 등이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어야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재발 또는 유입을 예방하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방역시스템 및 기능의 확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과 기술의 선진화를 이룩하여야 무한경쟁시대에서 제몫을 담당할 수 있다. OECD 국가의 위상에 적합한 수의기술의 발전과 이를 토대로한 대국민 서비스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가축방역 및 축산식품위생기능은 강력한 중앙집권화 조직체계가 요구되며, 일사불란한 중앙통제력으로 축산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길만이 자유무역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축산업 총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가축질병의 방제와 개방화에 따른 수출입 동물과 그 산물의 국가검역업무의 폭주, 무역다변화에 따른 방역위생관련 업무의 다양화 및 위험도 증가, 유해미생물과 유해물질의 오염증가로 인한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필요성의 증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수의행정기관인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는 광복이후 현재까지 1개 과로 존속하고 있어 방대해진 수의조직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수의국으로의 승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수의 시험연구조직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하여 수의행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금년 봄 구제역의 발생에 따른 긴급국가방역체제로의 전환 운용과정에서 체계화된 방역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문방역요원의 확보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선진제국의 가축방역사를 보면 구제역 등 주요가축질병의 발생과 이의 방역과정에서 문제된 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수의조직 확대개편과 전문인력의

확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중앙수의조직과 지방수의조직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야기될 수 있는 가축방역의 문제점을 해소할 제도적 보완도 차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가축방역 및 축산물의 안전성확보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축산업은 농업과 더불어 생명산업이며 안보적 차원에서 육성발전시켜야하는 국가적 생존산업이므로 기본식량과 축산물의 자급없이는 선진대열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자유무역시대에 우리 나라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국제경쟁력이 확보된 위생적으로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공급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주요 질병의 방역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는 수의정책의 선진화와 발전을 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김옥경. 1998. 제4편 방역과 검역 제2장 국제검역. 한국수의 50년사. 대한수의사회, p.252-276.
2. 김용희. 1998. 제4편 방역과 검역 제1장 국내방역. 한국수의 50년사. 대한수의사회, p.221-251.
3. 박종명. 1998.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대한수의사회 창립 50주년 및 수의과학회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p.67-91.
4. 배상호. 1998. 수의정책의 발전방향. 대한수의사회 창립 50주년 및 수의과학회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p.1-41.
5. 안수환. 1998. 수의과학분야의 연구방향. 대한수의사회 창립 50주년 및 수의과학회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p.43-65.
6. 임영일. 1998. 수의임상의 발전방향. 대한수의사회 창립 50주년 및 수의과학회관 개관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p.117-137.
7. 우기방. 1998. 제3편 수의행정과 제도. 한국수의 50년사. 대한수의사회, p.105-214.
8. Garner MG. 2000. Report of the OIE Mission to Assess the Foot-and-Mouth Disease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6-20 May 2000. p.1-54

수의정책개발 심포지움 토론 내용

제1주제 : 국가방역정책 발전 방안(구제역을 중심으로)

최상호 : 현재까지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의 진행사항은 전국의 혈중항체 검사성적이 항체양성율이 9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이후에 현재까지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처음 발생되고 나서 1년만 발생이 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되지않겠느냐했던 것이 지금 1년을 넘어섰고, 현재 항체양성보유율이 96%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확실한 근절사업을 완성하는데 기대를 주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제역의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3월달에 발생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외부적인 어